

2007 희·망·도·약

코리안 드림 꿈꾸는 광주 'K-P Line' 주인 조안씨

17평 가게엔 고향 생필품 가득 韓-필리핀 잇는 사랑방 됐으면...



조안(아이 안은 이)씨가 가게를 찾은 손님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작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남자와 결혼해 동구 호남동에서 모국인 필리핀산 생필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조안(Joanne·27)씨. 그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낯선 이국땅에서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고향집 언덕'과 같은 존재다. 필리핀 사람들은 그녀의 가게에서 고향 냄새가 물씬 배어있는 생필품과 음식을 접하며 향수병(鄕愁病)을 달란다.

2001년 6월, 교리 공부를 위해 낯선 한국땅을 밟은 뒤 이진행(39)씨를 만났다. 이씨의 성실함에 끌려 다음해 7월 결혼식을 올렸다. 가난했지만 둘은 행복했다. 하지만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을 유독 차별하는 한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많이 힘들게 했다. 5년 전 남편과 함께 영암 월출산 입구에 작은 기념품 가게를 했을 때 당한 모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 등산객이 그녀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같은 ×"이라고 다그친 것이다. 그녀는 "당시 정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금도 그때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고 했다.

2011년 6월, 교리 공부를 위해 낯선 한국땅을 밟은 뒤 이진행(39)씨를 만났다. 이씨의 성실함에 끌려 다음해 7월 결혼식을 올렸다. 가난했지만 둘은 행복했다. 하지만 후진국에서 온 외국인을 유독 차별하는 한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많이 힘들게 했다. 5년 전 남편과 함께 영암 월출산 입구에 작은 기념품 가게를 했을 때 당한 모욕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 등산객이 그녀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같은 ×"이라고 다그친 것이다. 그녀는 "당시 정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지금도 그때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고 했다.

그녀가 1년 전 은행에서 1천500만원을 대출받아 문을 연 가게 이름은 'K-P Line'. Korea-Philippine의 줄임말로, 한국과 필리핀을 잇는다는 뜻을 담았다. 17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지만 겸·과자는 물론 치약·비누·화장지 등 생활용품에서 위스키·맥주 등 술까지 구색을 갖췄다. 모두 필리핀산이다.

가게 내 한쪽 벽에는 시나경(유우)과 생선오뎅 만든 수프 등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먹는 5~6개의 요리 이름이 적힌 종이 가 걸려 있고 작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도 갖춰

여 있다. 광주에 사는 필리핀 사람들은 문득 고향의 요리가 그리워질 때면 이곳을 찾는다. 고향에 좀 더 많은 동포들이 고향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는 가게 옆에 있는 16평 점포를 얻었다.

휴일이면 200명 넘게 몰려 가게에서 만난 닐로(Nilo·39)씨는 "돈을 벌기 위해 4개월 전 필리핀에서 광주에 왔는데, 고향에 두고온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곳을 찾는다"며 "마치 고향에 온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인에겐 단순히 필리핀 제품을 파는 가게지만, 이들에겐 고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한 '사랑방'인 것이다. 이제는 임소문을 타 휴일이면 200명이 넘는 동포들이 가게로 몰린다. 조안씨의 한국생활은 올해로 6번째. 지난

그녀는 요즘도 세 살배기 주유이를 보면 서걱정이 앞선다. 외모 차이 때문에 행여친

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조안씨는 "필리핀 사람 외에도 필리핀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이 가끔 가게를 찾는다"면서 "가게가 필리핀 동포의 사랑방 역할은 물론 한국과 필리핀 사람들을 이어 주는 만남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

아들 주유이 왕따 당할까 걱정

그녀는 요즘도 세 살배기 주유이를 보면 서걱정이 앞선다. 외모 차이 때문에 행여친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경찰 내연남 수배 화재 현장에서 40대 여성이 둔기로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30분경 불이 난 광주시 북구 문흥동 J원룸 2층 오모(여·44)씨 집에서 오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오씨는 머리 뒷부분에 피를 흘리고 알몸 상태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고, 이불 위에는 불을 지를 때 쓴 것으로 보이는 두루마리 화상지 7~8개가 놓여 있었다. 방 안에

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둔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도 보아 누군가 오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3명의 남성과 통화가 잦았으며, 그 중 1명이 내연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40대 남자가 오씨의 원룸에 드나든 정황을 포착, 오씨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충효예절 일일 체험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12일 오전 광주시 남구 서동 광주향교에서 전통차 마시는 법(茶禮)에 대해 배우고 있다. 캠프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금요일 어린이들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틀게이트 방호벽 받아 3명 사망

12일 새벽 2시께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영업소에서 광주에서 순천으로 가던 '06나29××'호 매그너스 승용차(운전자 김모·30)가 영업소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와 함께 타고 있던 조모(30)씨, 조씨의 동생(29) 등 3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사고 당시 영업소 인근에는 통행 차량이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과속으로 차를 몰던 김씨가 갑자기 속력을 줄이려다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어린이 예절교육

잇단 납치·테러, 경찰 뭘하나

피습 건설사 사장 "공씨 납치범과 동일범인 듯"

광주에서 건설사 대표를 표적으로 한 납치와 테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은 무엇을 하고있는지는 비난이 일고있다. 지난해 11월 백운동 K호텔 사우나에서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N건설의 사장 공모(52)씨가 납치당했다가 풀려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봉선동 S아파트 앞에서 공씨와 친분이 깊은 S건설 사장 김모(53)씨가 과한들에게 피습당한 것이다. 특히 김씨는 "공씨 납치범과 동일인물들에게 폭행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경우 경찰의 늑장 수사가 '제 2의 범행'을 불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9일 김씨를 피습한 과한 4명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랜 시간 김씨의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도착하자 스쳐 지나가는 척하며 얼굴을 확인했다. 범인들은 이어 김씨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다. 범인들이 김씨를 폭행한 시간은 불과 2분여. 모두 모자를 쓰고 목이긴 상의를 얼굴까지 올려 입어 김씨의 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아파트 단지 밖까지

공씨와 친분이 있어 당한것 같다

피습 김씨 일문일담 "공씨와 친분이 있어 당한것 같다" -범인들이 공씨 납치범과 동일인물이라고 보는 이유는? -공씨와 같이 사업을 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원한 살일이 없다. 강도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와서 바깥출입을 할때 주의를 기울이기는 했다. -평소에 협박을 당하거나 피습 김새를 느꼈적은 없다. -전혀 없었다. 다만 지난해 공씨가 당한 후 주변사람들이 '공씨와 친구타를 하고 달아난 것을 보면 지난해 11월 공씨가 당했을 때와 너무 같다. -테러를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마땅한 이유를 모르겠다. 공씨와는 20여 년간 친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일 뿐, 현재는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관계가 맺고 있지 않다. 아마 공씨와 내가 함께 사업을 하

휴일 낮부터 포근 1월 13일 (음 11월 25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Jeonnam.

나원침 (7027) 김장두



평소선도서위 중점특강을 누리는데 3,636 최대연계! /수원선도서 피오리 062-367-9000

폭력시위 주동 혐의 민주노총 간부 구속

순천경찰은 12일 각종 폭력 시위를 주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 유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희망연대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유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집회에서 시정사 유리창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고시원 방화범 무기선고

20명의 사상자를 낸 잠실 고시원 화재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12일 방화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명의 사상자와 17억원에 달하는 피해에 대해 아무런 회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만원 '해장국 내기' 화투판 입건

○한 동네 사람들이 '해장국 내기' 화투판을 벌였다 경찰에 적발돼 즉심에 처해질 것으로 알았으나 일행중 도박 전과자가 끼여있는 바람에 모두 형사입건. ○서울 해동경찰서는 12일 관동 2인9천원을 걸고 화투놀이를 한 혐의(도박)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이웃 상가에 밤샘 문상을 다녀온 뒤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기 사람이 해장국을 사기로 하고 판돈 2만9천원 규모로 화투놀이를 한 혐의. ○경찰은 "신고가 접수돼 A씨 등을 조사했다"며 "판돈으로만 보면 즉결 심판에 넘겨야 하지만 이들 가운데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경찰에 내린 도박사건 처리 지침은 판돈이 15만원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는 경우 관련자를 형사 입건토록 하고 있으며 초상집에서 화투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묵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많은 돈을 벌었다고 추측한 것 같다. -피습을 당한 후 심경은? -경찰이 공씨 사건 범인을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담당하고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할 생각까지 했었다. 앞으로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나와 비슷한 제 2, 3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